

# ‘동의보감’ 백세건강을 새기다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9월 26일까지 특별 전시 개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가치와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완영본(完營本)의 의미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7월 23일 개막을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이어지며, 판각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문화체험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이 주최하고 문화재청, 경상남도, 산청군이 후원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활용·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완판본문화관은 2021년 해당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선정, 판각 콘텐츠 전시와 기록문화체험을 주관하게 됐다.

허준(許浚 1539~1615)이 집필한 ‘동의보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의학서다.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해 1610년에 집필이 완성, 25책의 방대한 분량이 1613년(광해군 5)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됐다.

선조대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동의보감’에는 백성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애민(愛民)의 마음이 담겨있다. 17~19세기 전라감영(完營)과 경상감영(營營)에서 여러 차례 간행 유했다. 전라감영에서 목판으로 새겨 ‘동의보감’을 인쇄하던 책판은 전주 향교에 소장돼 있다가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전라감영의 책판(完營책판)은 1899년 당시 전라관찰사였던 조한국의 명으로 전라감영 내에 흩어져 보관돼 있던 책판이 전주향교로 옮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가치와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완영본의 의미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열린다.

겨지면서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주에 머물러 있다. 현재 완영책판은 약 11종 5,000여 장이 전북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데 그 중 ‘동의보감’ 책판은 150여 장이 남아있다.

이번 전시에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완영책판 ‘동의보감’ 2점이 공개된다.

또한 ‘동의보감’의 일부를 목활자로 재현한 재현판도 최초 선보인다. 재현판은 초간본(1613) 목활자본 신형장부도의 도형이 있는 권1 내경편(內景篇) 7장 부분이다.

이와 함께 목활자와 목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권 11 집편(集辨) 5장 부분도 복각하여 인쇄와 출판 과정의 차이와 이해를 돕는 전시로 구성된다.

현재 전북대에 보존된 완영책판은 손잡이 부분인 마구리가 전체적으로 결락돼 있다. 복각 목판본과 일본 책판의 비교전시는 판각 기법, 목판 형태 등의 비교를 통해 완영책판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전라감영 간기(刊記)의 복각목판본, 완영본 동의보감 서책, 동의보감 상해판 등 ‘동의보감’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안상우 단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의학의 대표 문헌이자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의 가치, 의료 지식의 대중화에 힘 쓴 지방 관청에서의 출판과 배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준영 관장은 “백성들의 백세건강을 염원한 ‘동의보감’에는 시대를 넘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애민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목활자 재현판과 복각 목판본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뜻깊고, 또 기록문화를 기반으로 전주 한지의 세계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향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청년 소모임 ‘빛바람, 춘4’ 전시회

26~8월 1일까지 익산 대장공장서 빛바람 공장 모습 속 추억 담은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지원 받아

익산과 군산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소모임인 ‘빛바람, 춘4’ (이하 춘4)가 빛바람 공장의 모습 속 추억을 담은 전시회를 연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에 선정된 춘4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 간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116번지(춘포4길 66-6) 대장공장에서 프로젝트 발표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찍는 청년 이호영&정대영, 그림 그리는 청년 고진영&장민지가 함께 구성한 소모임 ‘빛바람, 춘4’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춘포면 일대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익산 구 춘포역사(국가등록문화재 제210호),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호소카와 농장가옥(국가등록문화재 제211호)과 함께 대장공장(호소카와 도정공장) 등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과 해방 이후 근대 농촌지역의 생활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에서 진행된다.

주요 전시공간인 대장공장에는 기계들이 철

거 된 빼대 및 당시 사용하였던 쌀 포대, 가구, 금고, 상품 도장, 품질 시약병 등 그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들을 청년 예술가의 시선으로 그림과 사진에 담아 전시한다.

춘4의 장민지 대표는 “이번 사업과 전시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역사적 공간에 대한 지루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도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역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지역청년들이 고민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사업은 도내 청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내 이슈, 환경 등을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개 소모임이 선정돼 전시회, 영상제작, 책자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이나 청년 소모임 ‘빛바람, 춘4’ (010-2111-917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네마 파라다이스’ 온라인 공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은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무대로 오는 28일 온라인 공연 ‘시네마 파라다이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관중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완주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진행되며, 관악 5중주 ‘브라스밴드’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수오노 트리오’로 연주하는 시네마 영화 OST와 클래식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관람은 28일 오후 7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중계 된다.

이재정 관장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더위에 지친 군민을 위해 시원한 여름밤을 선물하고자 한다”면서 “안전한 공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이수자인 김영남의 초대전이 전시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무대로 오는 28일 온라인 공연 ‘시네마 파라다이스’를 진행한다.

##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150명 모집

문화재청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50명이다. 동일한 나이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은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8월 2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대식과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크는 최근 세계 유명 사전 사이트에 한복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미주와 유럽권에서 유명한 메리엄-웹스터 사전, 옥스퍼드 사전, 영국 콜린스 사전 등 사전 편찬 담당자에게 한복을 설명하는 영어 자료를 보내 신규 영어단어로 등재되길 요청했다. 영국 콜린스 측은 “한복, 한국의 전통의상”이란 설명을 사전에 등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뉴시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